

초정밀 PP 수축필름 國産化

年 1천2백톤 生産 · 2백만弗 수입대체



식품·약품·화학제품의 防濕 및 안전포장재로 사용되고 있는 폴리프로필렌(PP) 收縮 필름의 제조기술이 三星化成공업(대표 陳元浩)에 의해 개발돼 量産化단계에 들어갔다.

三星化成공업은 종래 對日 수입에 의존해오던 PP 收縮 필름 및 플랜트의 國産化에 성공, 城南공장에서 年産 4백t 규모의 國産 플랜트 준공식을 거행했는데 이 회사는 이 플랜트의 자체개발에 따라 年産 1천 2백

t의 PP 收縮 필름 생산능력을 보유, 年間 6백 t의 國內 수요층 쪽은 물론 海外 시장에도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그런데 PP 收縮 필름은 투명성과 광택이 뛰어나고 내한성 및 방습성이 우수해 식품·문구류·용기류·운동구동 상품의 특수포장재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독극물투입 사건 이후 식품의 안전포장재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가공방법이 어려워 日本이 세

계시장을 거의 독점해 왔었다.

三星化成공업은 지난 81년일부 도입기술을 이용, PP 收縮 필름의 시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나 가공방법과 기초원료상의 문제로 완전한 국제규모의 제품생산이 어려워 지난 84년부터 부설중앙연구소의 가공기계기술팀을 중심으로 이 플랜트의 자체개발 프로젝트에 착수, 1년간에 걸친 집중연구 끝에 PP 收縮 필름 플랜트의 國産化에 성공한 것이다.

이 회사 기술팀은 현재 과거 처에 의해 國策 연구과제로 선정된 PP 收縮 필름의 원료 國産化 연구를 진행, 이미 80% 이상의 연구진척률을 보이고 있는데 오는 10월까지 이 원료 國産化 연구가 완료될 경우 年間 2백달러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三星化成공업은 지난 83년 전국 發明展 대통령상, 85년 과학의 날 기념 동탑산업훈장, 제네바 국제 發明展 금은상을 각각 수상한 한편 84년 9월 PP 및 PE 收縮 필름 분야의 日本 식품포장규격(JP) 시험에 합격한바 있다. <우>